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2주일
제34권 8호(가해) 2014·1·19

[묵상]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았다."

"사랑의 끈"

하느님과 연결된 '사랑의 끈'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이 끈을 자르고
하느님에게서 멀리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또다시 그 끈을 묶으십니다.
우리는 또 죄를 짓고 도망을 가지만,
하느님께서는 끊어진 끈을 다시 묶으십니다.
그러다 그 끈은 어느새 수많은 매듭이 생기면서
더욱 짧아졌습니다.

'하느님의 어린양'은 끈이 짧아지면서,
우리 가까이에 더욱 더 다가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스스로 어린양이 되어,
이웃에게 다가가고 있는가?

그저 사랑으로,
그저 기쁜 마음으로,
그저 좀 더 손해보고,
작은 희생이라도 치를 수 있음은,
그래서 이웃에게 그저 더 다가 갈 수 있음은,
끈이 더 짧아져서가 아닐까?

-오-
petrus3@hanmail.net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미사

월 요 일	새 벽 미 사	오전 6:30
화 요 일	저 녁 미 사	오후 7:30
수 요 일	저 녁 미 사	오후 7:30
목 요 일	저 녁 미 사	오후 7:30
금 요 일	아 침 미 사	오전 8:30
토 요 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 일	아 침 미 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 요 일	레지오 마리애	오후 8:00
목 요 일	성 시 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애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 요 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 요 일	유아세례(짝수달 4째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애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3:00 오후 6:00
주 일	레지오 마리애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모임의 날 • 요셉회 • 제대회 4째주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 무 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김인영 베드로
	(생)아승훈 미카엘 & 이승찬 라파엘, 이용운
주 일 낮 미사	(연)김차욱 요셉 & 김복님 마리아, 고준희 제임스, 최근식 마리아, 이경용 야고보, 이숲조 클라라, 전서웅 요한, 임재화 안나, 홍점순 세실리아, 이용완 & 홍숙녀 마리아, 이용식 베드로, 김서형 시릴로, 김성일 바오로, 주용범 아브라함
	(생)이정훈 안셀모 & 오희운 도미나카 & 이유진 데리안드레아 & 이유미 율리아, 유은영 아녜스, 강인모 테오도시오와 강해원 아녜스의 데부모님, 김병조 마틴 & 박지연 요안나 가정, 이남현 막시모 & 이정아 리디아 가정, 박인식 토마스 & 박기원 리디아 가정, 유철희 바오로 & 유현자 안나 가정, 유명련 마리아, 구마리아네 수녀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49,3.5-6

화답송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굽어보셨네.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 주셨네.⊙
○당신은 희생과 제물을 즐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의 귀를 열어 주셨나이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바라지 않으셨나이다.
제가 아뢰었나이다.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두루마리에 저의 일이 적혀 있나이다.
주 하느님, 저는 당신 뜻 즐겨 이루나이다.
당신 거르침 제 가슴속에 새겨져 있나이다.⊙
○저는 큰 모임에서 정의를 선포하나이다. 보소서,
제 입술 다물지 않음을. 주님, 당신은 아시나이다.⊙

제 2독서 코린토 1서 시작(Corinthians) 1,1-3

복 음2 환호송 ⊙알렐루야.
○딸쓸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네.
그분은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를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네.⊙

복 음 요한(John) 3,13-17

영성체송 주님이 제게 상을 차려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187	187	231
봉헌	268	268	264
성체	307	307	309
파견	245	245	181

올바른 성모신심

제4장 잘못된 성모 공경

3) 근대

이 시기에는 마리아 왕국이 하느님 나라나 그리스도의 왕국에 못지않고, 그분께 드리는 공경이 그리스도께 드리는 공경과 유사해야 한다든가, 또는 마리아께서는 권능이나 지혜, 그리고 신성에 있어서 '하느님의 동료'로서 하느님과 거의 같은 차원에 계시다든가, 마리아의 법정은 자비의 법정이고 그리스도의 법정은 정의의 법정이라는 등의 신학자들의 입장도 난무하였다. 또한 낭만주의의 출현으로 성모 신심이 감상주의 경향을 지니게 되었다. 낭만주의 경향 아래 과장된 마리아론의 책들이 발간되었다.

이와같은 과장된 마리아 신심의 심각성은 다음과 같은 뉴먼의 비판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그는 '마리아의 노래' 에 대한 탁월한 해설을 책으로 펴내기도 하였으며 죽기 직전까지 마리아에 대한 강론을 하였다.)

"…… 그들은 나를 슬프게 합니다. 아니 거의 화나게 합니다. 하느님께만 드려야 할 능력을 …… 복되신 동정녀에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나는 그런 주장을 아무런 주저 없이 나에게서 멀리 팽개칩니다. 마리아의 자비가 무한하다느니,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을 마리아의 손에 쥐어 주셨다느니, 그분의 아드님 성자보다 마리아를 찾는 것이 더 안전하다느니, 우리의 주님께서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게 되어 있다느니, 하느님께서 화를 내실 때 그 사람에게는 마리아께서 유일한 피난처라느니……. 그들은 나에게 마치 나쁜 꿈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종교적 감흥에서 비롯된 과장된 표현으로 마리아를 묘사함으로써 프로테스탄트를 비롯한 반마리아주의자들에게 비난할 구실을 제공해 주었다.

4) 오늘날 우리나라의 잘못된 성모 공경과 신심

우리나라에서는 마리아 공경을 거부하는 프로테스탄트의 '반마리아주의'와 성모 마리아를 마치 하느님보다 더 자비하고 능력이 있는 여신처럼 간주하려는 '마리아 숭배' 가 문제 되고 있다. 또한 교회가 승인하지도 않은 사적 계시를 받았다고 선전하면서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

(1) 프로테스탄트(개신교)의 반(反)마리아주의

프로테스탄트 교단은 '가톨릭 교회는 정통 교회인가?'하는 점을 물으며 세 가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첫째, 천주교는 이단 내지는 기독교가 아니다.(보수적인 정통 개신교입장). 둘째, 천주교는 기독교와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단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셋째, 천주교는 이단이 아니며, 기독교와 형제지간이며 가정으로 본다면 큰집이다.(자유주의 신학적 입장).

<◆계속>

하느님의 어린양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요한 1,29) '하느님의 어린양'은 레위기 16장이나 탈출기 12장 그리고 이사야 예언서 53장을 더불어 읽고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와 구원을 위하여 어린양을 제물로 바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잠시 그 당시의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제사장은 경건한 복장과 성스럽고 치밀한 의식으로 한 마리의 어린양을 희생 제물로 바치고, 참여한 백성들은 감사와 안도 그리고 평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죄는 자신들이 짓고, 속죄와 희생은 아무 상관 없는 한 마리의 어린양을 제대에 바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속죄양으로 대속(代贖)된 어린양의 들릴 듯 말 듯한 외마디 비명소리도 귓전에 남습니다.

우리 인간은 나를 대신할 이런 속죄양을 만들어 내는데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이름과 재산을 위해, 허욕과 자존심을 위해, 무엇인가 나 자신을 위해 끊임없이 속죄양을 만들어 냅니다. 어떤 때는 사람을, 어떤 때는 시간을, 수많은 핑계를, 나 말고 그 어떤 것이라도 대속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평안해질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 나를 위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속죄양의 모습으로, 스스로 세례자 요한 앞으로 다가오십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 앞으로 그 속죄양의 길을 걸으실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해,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을 위해,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다가오십니다.

내 앞으로도 오십니다. 또다시 내가 당신을 속죄양으로 만들어도 되는 것처럼, 또는 다시 한 번 십자가에 못 박아도 괜찮은 것처럼,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이런 것이 구원자의 길임을 가르쳐 주러 오십니다.

이제 생각합니다. '나는 속죄양이 되어 줄 수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해받기도 하고, 버림받기도 하고, 비천해지기도 하는 그런 상황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인지요?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가신 길은 분명 그런 길인데 나는 왜 안되는지요?

어느 날 나의 아픔과 비명으로 인해 다른 이가 살 수 있다면, 그래서 더 많은 생명이 살아갈 수 있다면, 이번 차례는 내가 속죄양이 된다 한들 그렇게 억울할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자유롭게 당신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헤아려 보면서, 혹시 나에게도 있을지 모를 나의 무너짐조차 그분과 함께 걷는 길이라고 생각합시다. 내 인생 전체가 그 길을 따르기 어렵다면 이 한 주간, 어쩌면 이번 한 번만이라도 내가 속죄양의 길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귀석 신부 / 서울대교구 개봉동성당 주임

그런 일

세상에 죽어도 못 하는 일이 어디 있으며
죽어도 해야 할 일은 또 뭐가 있겠나.
그저 죽어도 하고 싶은 일과
죽어도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뿐이지.
정말 죽음을 코앞에 두고도
하기 싫은 일, 죽어도 못 한다 고집을 피우고
하고 싶은 일, 죽어도 해야겠다고 욕심 낼 수 있을까.

◆이영 아녜스 / 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호미 엘리사벳	신덕례 데레사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이민상 요한	박진수 스테파노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이순자 비비안나	박혜경 레나타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P.V. 2/4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보나 보나	남성철 베네딕도	이진향 아녜스
제1독서자	박민환 미카엘	이민상 요한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이은지 수산나	이순자 비비안나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3반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갑오년 '설날' 합동 위령미사

- 일시 : 1월31일(금) 오전 8시30분, 오후 7시30분
- 미사후 세배와 떡국 나누기
- 미사예물 봉헌 : 26일(주일)까지 사무실

◈ **요셉회 설 맞이 잔치**
- 일시 : 오늘 주일(19일) 낮미사 후
- 장소 : 장당
- 행사내용 : 윷놀이, 제기차기, 노래자랑 등 다양한 놀이
- 푸짐한 상품과 기념품이 준비되어있음
- 부부동반 참석(요셉회원이 아닌 분들도 환영합니다.)
- 문의 : 정기은 비오 요셉회장 ☎(310)780-2789

◈ **울뜨레아 신년회**
- 일시 : 오늘 주일(19일) 11시 미사후
- 장소 : 중간회의실(식사제공)
- 본당 꾸르실리스타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문의 : 이명순 울뜨레아 간사☎(310)749-0276

◈ **주님 봉헌 축일 … 제대초 봉헌과 개인초 신청받습니다.**

오는 2월2일(주일)은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한 해 동안 제대에 사용할 초와 가정에서 쓰실 초를 축성합니다.
- 초값 : 제대초 $20, 개인초 $15 (개당)
- 신청 : 1월30일(목)까지 성물부 김막달레나 또는 사무실
- 봉헌미사 : 2일(주일) 낮 11시
- 문의 : 김막달레나 ☎(310)539-3377

◈ **본당 성소 후원회 회원모집**

성소자 양성 및 예비 성소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실 성소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 모임일시 : 매월 첫목요일에 미사와 성시간 후에 바치는 합동 묵주기도 모임에 참석하면 됩니다.
- 개인적으로 매일 '성소를 위한 기도'를 바침.
- 문의 : 강혜원 아녜스 성소후원회 회장 ☎(310)780-0369

◈ **2013년(작년) 교무금/성전헌금 봉헌내역 가정통신문 발송**

작년 한해동안 봉헌해주신 교무금과 성전헌금, 감사헌금, 특별목적헌금 내역 등을 담은 가정통신문이 지난주부터 교우 여러분 각가정에 우송되고 있습니다.
가정 통신문의 봉헌내역은 인컴택스리턴(개인세금보고)을 위한 헌금증빙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수록된 내용외의 기부금을 추가하실 분은 사무실 재무담당자에게 신청하십시오. 주소변경으로 받지못하신 분은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기도의 언덕'에 초대합니다.**
-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의 지향을 적어서 성체 조배실에 비치된 '기도의 언덕' 함에 넣어 주시면 매주 목요일 성령기도회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 문의 : 본당 성령기도회 ☎(310)780-0369

◈ **한국학교 교사직 관심있으신 분 연락바랍니다.**
- 자격 : 한국에서 대학교육을 받으신분(전공에 관계없음) 6개월 동안 연수를 받으실 수 있는 분.
- 대상 : SAT, 유치반, 중급반 선생님(한국학교에 자녀보내시는 학부모님 우선 환영합니다.)
- 문의 : 김화경 스텔라 한국학교 교장 ☎(310)464-7490

☺ 서로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월19일(주일) : 토런스 서 1/3반(소고기무국 $3)
  * 주일학교 수업 없음
- 1월26일(주일) : 토런스 남1반(콩나물북어국 $3)
  * 주일학교(7학년 치킨캐사디아)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순복 고천용 권태만 금동군 김교복 김대우
김병록 김성택 김윤진 김정선 김정희 김준호
김현숙 김형순 박광자 박영희 송영미 신경훈
심재은 오상준 우영희 원건희 이귀분 이남현
이상규 이인두 이일길 임연조 장영우 정규숙
정연영 정혜영 주영석 최기남 최미열 최의수
최재영 하정화 한장환 한혁수 황지영
김재클린 영희가브라

합계 : $3,835

주일미사 헌금 : $2,924

성전헌금

고천용 권태만 금동군 김교복 김대우 김정선
김정희 김준호 김현숙 박광자 신경훈 오상준
원건희 이귀분 이남현 이상규 장영우 정규숙
정혜영 최기남 최미열 최의수 최재영 하정화
한장환 한혁수 황지영 영희가브라

합계 : $1,795

한남체인 도네이션 : $450

감사헌금 : 강순복 **달력·주보후원금 : $650(감사합니다.)**

공지사항

◈ **오늘(19일) 주일학교/한국학교 수업 없습니다.**
- 마틴루터킹 주니어 기념일 연휴, 학생미사 한국어로 진행.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8학년~12학년
- 일시 : 7월25일(금)~27일(주일)
- 참가비 : $200(접수 : 주일학교 교사실)
  * 디스카운트 혜택 : 2월9일까지 접수하면 10% 절약 $180
- 신청마감 : 2월23일까지 선착순 30명제한(no refund!)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그룹리더 ☎(310)709-3343

◈ **2학년 첫영성체반 학부모 모임**
- 일시 : 2월2일(주일) 수업시간중(오전 10시30분~낮12시)
- 내용 : 수업내용, 준비사항, 스케줄 관련 등
- 문의 : 이진원 루시아 초등부 주임 ☎(310)780-8895

◈ **백삼위 한국학교 교사 연수**
- 일시 : 오늘 주일(19일)~20일(월) 오전 9시30분~오후 6시
- 장소 : 본당 2층교실 * 대상 : 한국학교 교사
- 목적 : 지난학기를 평가하고 다음학기의 계획과 학생평가방법 특강(고려대 이선우 교수)

◈ **백삼위 한국학교 2학기 시작…등록중입니다.**
- 2학기시작 : 2월2일(주일) 낮 12시30분
- 등록장소 : 오전 11시~오후4시 성당2층 한국학교교무실
- 학비 : 첫째 $200, 둘째 $190, 셋째 $180, 넷째 면제
- 문의 : 김화경 스텔라 한국학교 교장 ☎(310)464-7490

남가주 소식

◈ **전례특강 "일상속에서의 미사 전례의 의미"**
- 일시 : 2월2일(주일) 오후 2시~오후 5시 30분
- 장소 : LA 성 아그네스 성당
- 강사 : 조학균 신부(대전 가톨릭대학 전례학교수)

◈ **4박5일 영신수련 침묵 피정**
- 일시 : 2014년 2월5일(수)~9일(주일)
- 지도 : 조학균 예수회 신부
- 장소 : Prince of Abby(650 Benet Hill Rd. Oceanside)
- 문의 : 하세실리아(323)578-2230

◈ **'좋은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시즌4-발렌타인데이 스페셜**

미혼 가톨릭 청년들의 유쾌상쾌통쾌한 만남의 자리! 신앙안에서의 좋은 인연의 시작! 서둘러 신청하세요!
- 일시 : 2014년 2월8일(토) 오후 5시
- 대상 : 남자(84-74년생), 여자(86-74년생)
- 장소 : 성 토마스 한인천주교회(412 N. Crescent Way Anaheim, CA 92801)
- 참가비 : $80 * 신청마감 : 1월26일(주일) 남녀 선착순 20명
- 신청서 : www.stkcc.org에서 다운로드 가능
- 문의 : 이창익 라파엘 ☎(858)880-8787

소공동체 1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율리아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변혜경 율리아나 920-5253 1/11(토) 오후 6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한장주 요아킴 213-276-3168 1/11(토) 오후 7시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1/10(금) 오후 8시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데오도시오 780-3258	이병찬 안토니오 780-3258 1/17(금) 오후 7시
	2	심옥방 미카엘라 999-5808	최지영 카타리나 848-0590 1/11(토) 오후 6시
	3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윤선희 로사 710-8416 1/16(목)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최기남 야고보 968-8280 1/17(금) 오후 7시30분
	2	박정남 마르시아 951-4710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13(월) 오전 11시
	3	조정선 마리아 945-8204	이재용 안드레아 793-7733 1/11(토) 오후 6시30분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율리아 404-1607	김병태 요셉 999-1448 1/13(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희동 안토니오 365-7871	1/2	조소영 수산나 804-7645	조소영 수산나 804-7645 1/11(토) 온천관광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1/10(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리센시아 482-9108	조혜란 엘리사벳 562-402-8518 1/17(금) 오후 7시
	3	정종미 클라라 818-1799	정치영 프란치스코 818-1799 1/10(금) 오후 7시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오현희 골롬바 617-3568 1/14(화) 오전 10시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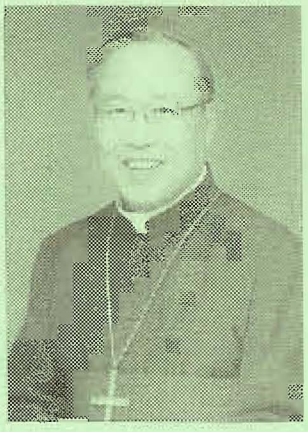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오후 1시

다음주 단체모임

사목회	오후 1시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대주교, 추기경에 임명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2014년 1월12일(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삼종기도 직후, 한국의 서울대교구장이며 평양교구장 서리인 염수정 안드레아 대주교(사진)를 포함한 19명의 주교를 추기경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하셨다. 이로써 염수정 대주교는 김수환 추기경(1969년 서임), 정진석 추기경(2006년 서임)에 이어 한국 출신으로 임명된 세 번째 추기경이 됐다.

추기경은 주교직에 부여된 권한을 그대로 행사하면서 교황 선거권을 갖는다.(만 80세 미만). 또한 정기적으로 열리는 추기경회의(consistory)에 참석하여 교회의 중요 사안들을 논의하는 등 그 교회법적 권한보다도 세계 교회 지도자로서 추기경이 지니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욱 크다.

염수정 추기경은 1943년 경기 안성 출생으로 1970년 사제품을 받았다. 이후 불광동 본당, 당산동 본당 보좌신부, 성신고등학교 교사를 거쳐 이태원 본당, 장위동 본당, 영등포 본당 주임신부를 역임하였다. 교구 사무처장 등 보직을 거친 뒤 목동 본당 주임신부로 재직 중인 2001년 12월 서울대교구 보좌주교로 임명되어 이듬해 1월 주교품을 받았다. 2012년 5월 10일 정진석 추기경이 은퇴함에 따라 서울대교구장을 계승하여 2012년 6월 25일 서울대교구장에 착좌하였다.

현재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장, 주교회의 선교사목주교위원회 위원, 주교회의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성 베드로 사도좌 축일인 2014년 2월 22일(토), 바티칸에서 열리는 추기경회의 중에 염수정 대주교를 포함하여 신임 추기경을 서임하며, 다음날인 2월 23일(일) 새 추기경들과 함께 추기경 서임 축하 미사를 주례한다.

염수정 안드레아 대주교(廉洙政, Andrew YEOM Soo-jung)는-.

성명: 염수정(廉洙政) 대주교 YEOM Soo-jung
세례명: 안드레아 Andrew
생년월일: 1943년 12월 05일

잠옷입고 기도해도 되니?

주님 세례 축일로 우리는 크리스천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지구로 오신 엄청난 사실을 경축하는 성탄 시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은 요르단 강가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우리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저는 모든 크리스천과 같이, 수녀의 역할도 세례자 요한처럼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기천리 베네딕도 교육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보성인은 12세기 신비주의 베네딕도 수녀인 힐데가르드입니다. 성녀는 녹색에서 생명을 보고 어려서부터 비전을 보며 우주의 원리를 엿보았습니다. 비전을 그림으로 제시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주의 신비에 눈뜨게 하는 모습은 떼이야르 드 샤르댕 신부님을 능가(?)한다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순교자만이 증인이 아니라, 모든 성인들은 증인들입니다.

저희 베네딕도 교육원은 수원 가톨릭대학교가 있는 건달산 뒤편 기천골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침 햇님이 건달산으로 올라올 때는 '주님께서 성체를 들어 올리신다'(이수철 신부 詩)라는 시가 저절로 읊어집니다. 저는 떼이야르 드 샤르댕 신부님처럼 황량한 중국의 대지 위에서 자신을 봉헌하며 미사를 드릴 엄두는 내지 못해도 사제의 아름다운 일상을 부러워하였습니다. 하지만 건달산 위로 떠오르는 태양은 하느님이 들어 올리시는 성체라는 생각에 가슴이 뜁니다. 건달산이 제대가 되어 다가오면서 마치 하느님께서 미사를 드리시는 것 같습니다. 기천골의 자연은 하느님을 만나기에 너무 좋습니다.

기천골에 살면서 '고향'에 온 것 같이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집에 휴가를 가면 어머니는 질문이 많으셨습니다. "하느님을 아버님이라고 하지 않고, 왜 아버지라고 하니?" "십자가를 내려놓거라! 한 번 죽은 것도 안쓰러운데, 왜매달아 놓고 보니?"

"예수님이 에미 앞에 갔으니, 불효다." "성모님이 불쌍하다."라고 하십니다. 한번은 "잠옷을 입고 하느님께 기도해도 되니?"라고 물으시며 잠옷을 입고 기도하려니 죄스럽다고 하십니다. 제가 "예수님하고 팔베개하고 주무셔도 돼요!"라고 했더니, "아이고 숭하다." 하시면서 돌아앉으십니다. 어머니의 질문은 성경을 건성으로 읽었던 저에게 세례자 요한의 증언처럼 가슴을 두드립니다. 세례자 요한의 증언은 그렇게 일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잠옷을 입고 기도해도 되고, 예수님과 팔베개해도 됩니다. 모든 일상안에서 하느님을 보게하는 세례자 요한의 계시가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홍성임 수녀/붓찡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서울수도원